

ICT산업 HOT CLIPS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2020. 10. 29 Vol. 55

2020. 10. 29

Vol. 55

ICT산업 HOT CLIPS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산업 Brief

- 기고문 |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부상과 사회·경제적 영향
- ICT Espresso

정보통신방송사업 Scr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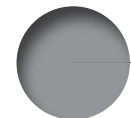
- 정보통신방송사업 'ZOOM IN'
- 인포그래픽 | 2020 차세대 미디어대전
- 알림 Talk | KCA 일정안내
- 캘린더 | ICT 유관기관 일정 공유
- Invitation

Job T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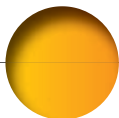
- 일자리 정책 및 뉴스
- 수행기관 채용정보
- 사업자 일자리 매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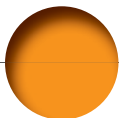
2020. 10. 29
Vol. 55



CONTENTS



01 ICT산업 Brief



02 정보통신방송사업 Scrap

03 Job Talk

기고문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부상과 사회·경제적 영향
ICT Espresso

정보통신방송사업 ‘ZOOM IN’
(주)버넥트/(주)부뜰정보시스템
인포그래픽
2020 차세대 미디어대전
알림 Talk
캘린더
ICT 유관기관 일정 공유
Invitation

일자리 정책 및 뉴스
수행기관 채용정보
사업자 일자리매칭

발행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발행일 2020년 10월 29일
편집 기금성과평가팀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0(빛가람동)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디자인 승일미디어그룹 주식회사

데이터가 산업 발전과 혁신적인 성장을 이끌 새로운 자본으로 떠오르며,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 전기, 금융자본에 비견되는 21세기 필수 자본으로 주목받고 있다.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부상과 사회·경제적 영향



글 | 장준희 선임 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AI·미래전략센터, junhee@nia.or.kr)

“데이터 경제 시대로의 진입으로 인한 혁신, 경제 성장, 사회 발전에 관한 긍정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데이터와 AI를 통한 경제 성장과 사회적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민과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데이터가 산업 발전과 혁신적인 성장을 이끌 새로운 자본으로 떠오르며,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 전기, 금융자본에 비견되는 21세기 필수 자본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데이터는 석유와 달리 고갈되지 않는 자원이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필수 원자재로 지속 누적되어 기존의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을 압도하는 경쟁 원천이 될 것이며 다양한 기술과 융합해 혁신적인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언론에서는 데이터에 주목해야 한다고 아우성치고,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이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정책과 전략 방향을 내놓고 있다. '15년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데이터와 SW를 포함한 무형자산에서 나온 S&P 500 회사의 시장가치 비율은 84%이며, 미국 내 데이터 무형자산의 예상 가치는 8조

**그야말로 전 세계가
'데이터(Data)'
열풍이다.**



달러 규모'에 이른다고 얘기했다. 다음 해인 '16년 MIT에서는 신 자본인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 방법을 잘 적용하면 지속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으며, '17년 5월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데이터'라고 말했다.

이런 흐름에 따라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데이터 주도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수립과 함께 데이터 패권 경쟁에 돌입했다. 데이터 활용을 위한 추진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해 국가적인 정책으로 발표하고, R&D투자, 인력 양성, 협력 체계 구축, 데이터 개방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 및 법제도 마련 등 관련 이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데이터 자본에 집중 투자해 경쟁우위 확보에 돌입하고 있다. 전통 대기업인 GE는 설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이터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에 유니콘으로 성장한 기업들도 데이터를 이용해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 차량 승객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가 대표적인 예시다.

이렇게 기업들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변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잘 생산해서 축적하고 활용하는 것이 미래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평가하는 중요 지표가 되고, 경쟁의 핵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전통적인 대기업이 아닌 새로운 경쟁의 원천인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하고 SW를 활용하는 데이터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미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5대 기업은 전통 기업인 석유, 제조, 하드웨어 기업에서 ICT기업으로 바뀌며, 미국 IT업계를 이끄는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는 데이터를 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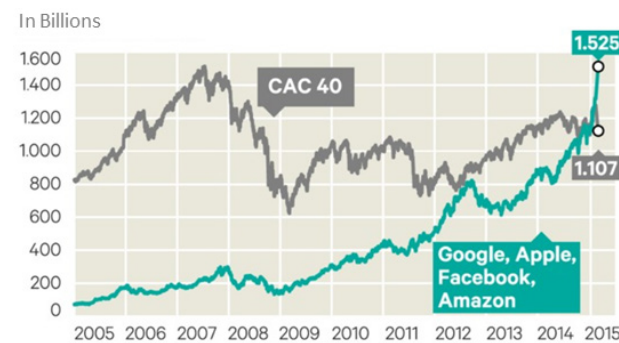
용해 막대한 경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놀랍게도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의 4개 기업의 시가총액은 2015년 프랑스 주요 40대 기업(CAC40)의 시가총액(Market cap)도 이미 추월할 정도로 급격히 성장했다.

[그림 1]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5대 기업 변화



*자료 : Visual capitalist, Aug 2016, 수정 인용

[그림 2] 프랑스 CAC40 시가총액을 넘어선 GAFA



*자료 : AVREL-BGC 2015, 수정 인용

이처럼 데이터는 기존의 산업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엎으며 전 세계를 새로운 변화와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는 새로운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1) Gartner(2011), How to Plan, Participate and Prosper in the Data Economy
- 2) EC(2014), Communication on data-driven economy
- 3) MIT(2016), The Rise of Data Capital
- 4) IBM(Feb, 2016), The Rise of the Data Economy, Page 2
- 5) 데이터 경제의 부상과 사회경제적 영향, 한국정보화진흥원(2018)

데이터 경제의 개념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며 데이터 기술과 서비스 발전에 따라 그 정의와 범위에 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2011년 ‘데이비드 뉴먼(David Newman)’이 쓴 가트너 보고서에서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개념이 처음 등장했으며, 이후 유럽 집행위원회(EC)의 디지털 싱글 마켓(Digital Single Market) 전략 내용에 데이터 경제(Data-driven Economy) 용어가 들어가면서 집중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데이터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확대됨에 따라 MIT, IBM 등 주요 학계와 기업에서 데이터 경제에 관해 새롭게 의미를 발표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개념은 가변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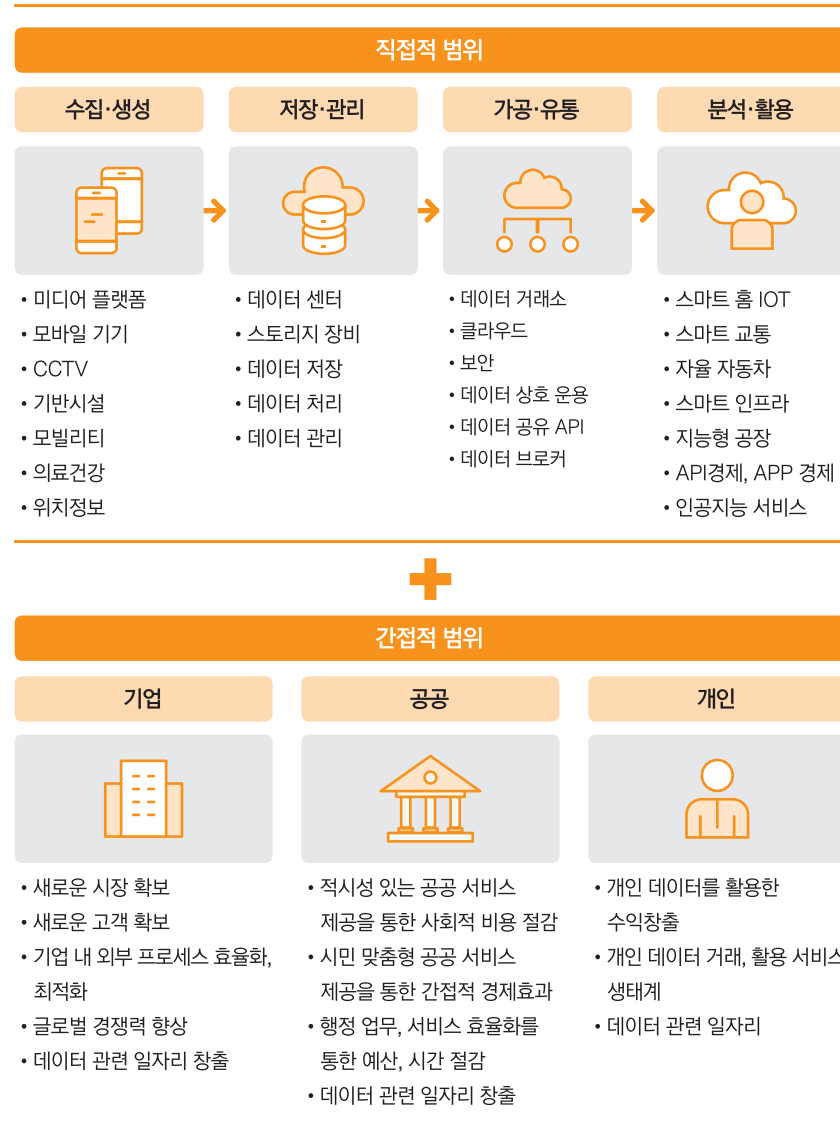
- 가트너(2011) : 응용 프로그램, SW, HW의 경제가 아닌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연결데이터 등 데이터로 파생되는 경제가 경쟁우위를 이끌어가는 시대¹⁾
- EC(2014) : 데이터를 다루는 구성원이 만들어내고 있는 생태계를 말하며, 데이터의 생성·수집·저장·처리·분배·전달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²⁾
- MIT(2016) : 데이터 자본은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저장된 정보로, 기존의 물리적 자산처럼 장기적인 경제적 가치를 보유³⁾
- IBM(2016) : 데이터를 내·외부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상은 이용 가능한 데이터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증가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 더 많은 데이터가 교환됨으로써 발생⁴⁾

데이터 경제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주요 정의의 키워드를 추출해 포괄적으로 해석해 보면 데이터 경제란 ‘모든 데이터가 활용하기 쉽게 자유롭게 흘러 다 산업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면서, 혁신적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제’로 해석할 수 있다.⁵⁾ 그리고 데이터 경제의 범위에는 데이터 수집·생성 → 저장·관리 → 가공·유통 → 분석·활용의 가치사슬을 통해 직접적으로 파생되는 산업 및 서비스 영역이 있다. 또한, 데이터 활용으로 인해 기업·공공·개인에게 간접적으로 파급을 미치는 경제적 가치와 영향도 모두 데이터 경제에 포함된다.

데이터 경제 시대로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많은 변화 중 하나는 기존 경제의 가치사슬들이 더욱 복잡하고 거대한 생태계로 바뀐다는 점이다.

하나의 데이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고, 실물 자본과 달리 비경쟁적이어서 무한하게 재이용이 가능한 신개념의 자본이다. 데이터는 그 자체로 가치가 크지 않지만, 상황적 맥락에 따라 적재적소에 자본으로 투입되어 혁신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점점 증가하는 스마트 기기에서 생성된 수많은 데이터가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되고, 기업이 데이터를 거래하

[그림 3] 데이터 경제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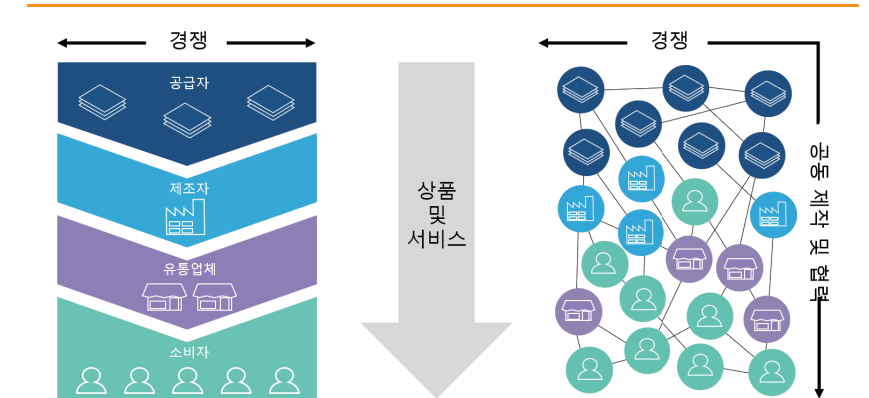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면서 서비스 간 융합이 발생해 더 크고 복잡하고, 동적이고, 연결된 가치사슬로 이뤄진 생태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데이터 경제가 기존 경제와 다른 점 중 하나는 개인이 소비자에서 경제의 주도적인 주체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림 4] 데이터로 인한 비즈니스 생태계 변화



*자료 : Deloitte analysis, Forbes 수정 인용

기존 경제에서의 개인은 기업이 생산한 서비스와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는 다양한 모바일 기기, 온라인 미디어 매체를 통해 만들어내는 개인 데이터를 통해 기업이 서비스와 제품을 만드는 데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예시로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는 191개국 420만 개 이상의 숙박 정보 및 고객 데이터를 확보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의 데이터가 없었으면 맞춤형 서비스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인의 데이터가 모여 기업의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우버(Uber)의 드라이버의 AI 알고리즘은 개인의 출발지, 목적지 데이터를 활용해 최적화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특정 구간으로 이동하는 개인이 많아 질수록 알고리즘이 변경될 수 있다.

이처럼 데이터 경제 시대로의 진입으로 인한 혁신과, 경제 성장 및 발전에 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 및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우려된다. 개인정보를 가린 가명 정보를 활용하더라도 여전히 재식별화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데이터라도 수집된 데이터 편향(Bias)과 노이즈(Noise)가 심하다면 이러한 데이터를 학습한 AI의 윤리·안전성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

향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이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온라인 서비스의 확대에 데이터와 AI로 인한 사회적인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활용을 통한 경제·산업 발전과 규제 사이에서의 원활한 조율을 통해 대중의 신뢰를 얻으면서 데이터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민과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ICT ESPRESSO

콘텐츠

코로나 비대면 흐름 잡아라...이통사, VR·AR 기기 판매 확대

이동통신사가 실감미디어 기기(디바이스) 판매를 확대하며 시장 형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콘텐츠가 관심을 끈 상황에서 현재 시장 초기 단계인 가상·증강현실(VR·AR) 콘텐츠의 대중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원문보기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01392>

바이오헬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AI 결합 '플랫폼' 개발

가천대 길병원과 셀트리온이 인공지능 의료 시스템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결합한 플랫폼을 개발한다.

원문보기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01014010002543>

클라우드

"디지털 전환 성공 기업들의 혁신 비결은"...'AWS 클라우드 워크'서 공개

주요 산업의 선도 기업들은 이미 클라우드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구현하고,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례를 통해 디지털 전환 여정에 필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원문보기

<http://it.chosun.com/site/data/html>

디바이스

"웨어러블 기기 전파인증 편해진다"...

인증여부는 QR코드로 표시할 수 있어

앞으로 웨어러블 기기의 전파인증이 간소화되고, 전파인증 여부를 QR 코드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ICT) 기기의 전파인증·등록에 관련된 부담을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원문보기

<https://www.ajunews.com/view/20201019144617462>

IoT

ETRI, 초보자도 사물인터넷 기기 만드는 SW 프로그램 공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SW) 개발용 프로그램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원문보기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10192658Y>

인공지능

포스텍, AI로 조작하는 전자현미경 세계 첫 개발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하는 전자현미경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 포스텍(POSTECH)은 양현종 전자전기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기업 이고비드, 코셈과 함께 AI 제어 현미경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원문보기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

SW

챗봇·AI·원격업무 전문 SW기업들, 비대면 확산 대응 분주

코로나19 확산 사태 우려가 4분기에도 지속되자 비대면 업무·일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간거래(B2B) 분야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의 대응이 활발하다.

원문보기

<https://www.ajunews.com/view/20201017184421622>

빅데이터

편의점·카드사, 빅데이터 활용 손잡아

편의점 업체들이 판매 데이터를 매장 운영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카드사와 손잡는다.

원문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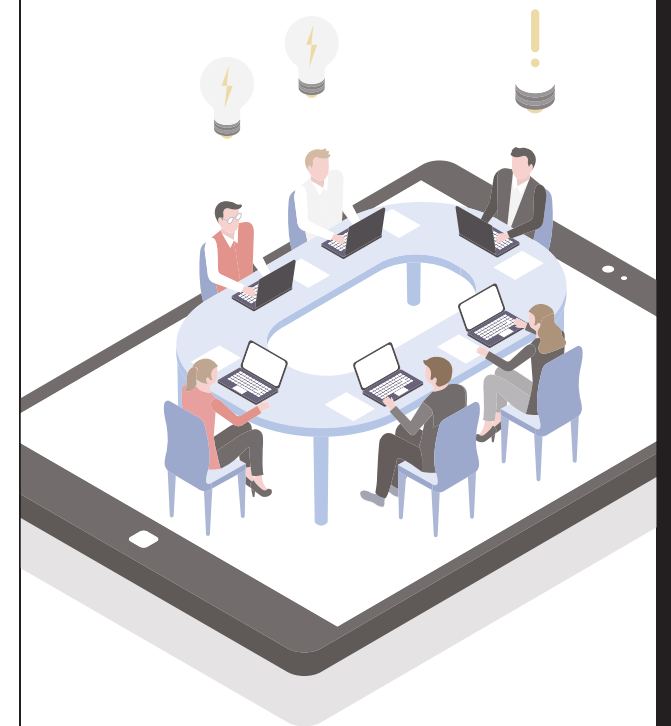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

네트워크

내년부터 5G급 와이파이가시대 열린다

내년부터 6GHz 대역(5925~7125MHz, 1.2GHz 폭)을 이용해 최대 2.1기가바이트(GB) 속도를 제공하는 5세대(5G)급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it/view/2020/10/1058744/>


ICT
ESPRESSO

차량용 콘텐츠 개발로 국내 AR 시장을 확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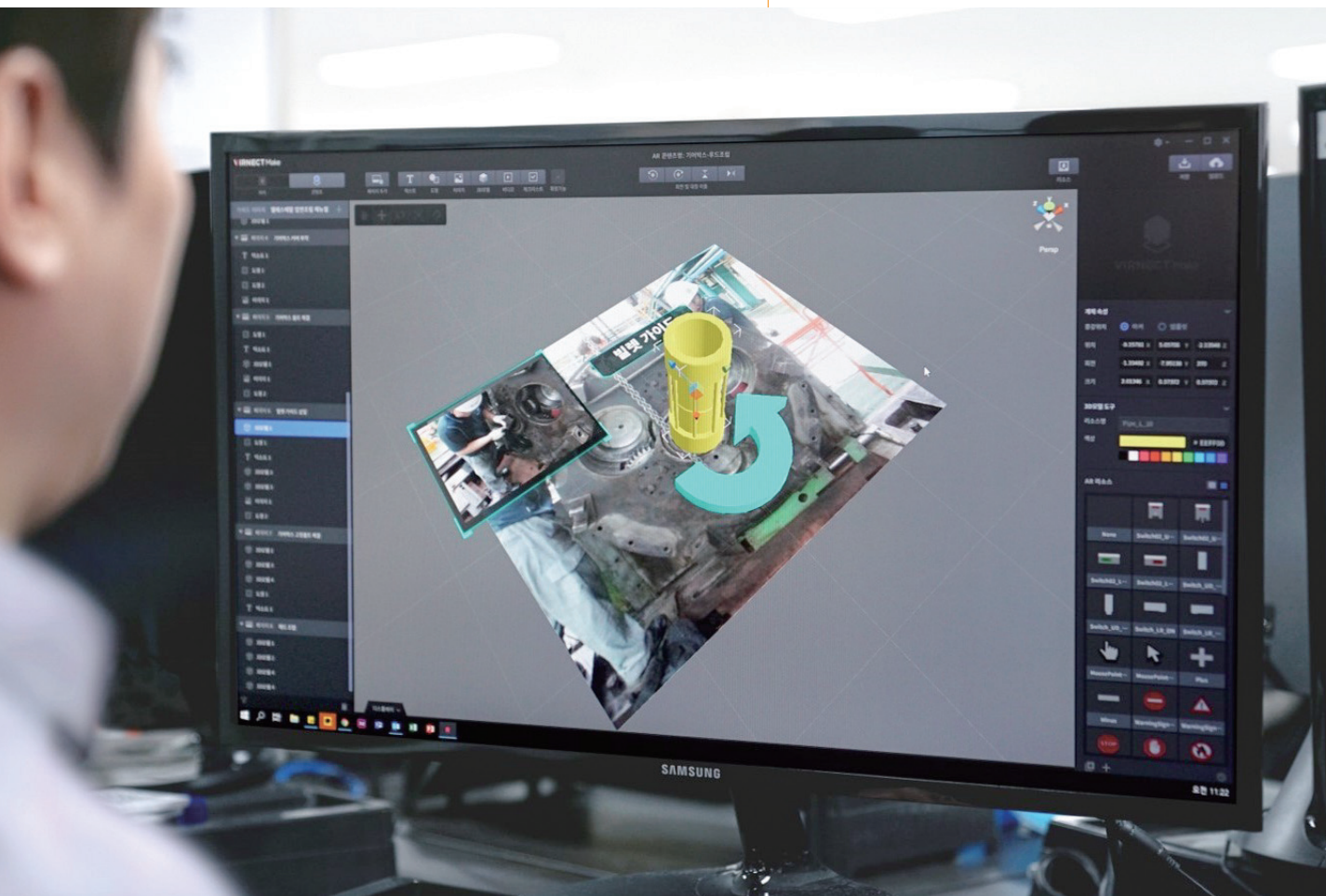
● (주)버넥트 박미나 매니저

기업현황

- CEO : 하태진
- 업종 : IT솔루션 (산업용 AR 및 디지털트윈)
- 설립연월 : 2016년 10월
- 홈페이지 : <https://www.virnect.com/>

일반현황

- 수행기관명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내역사업명 : 스마트미디어활성화지원
- 참여사업명 : 2019년도 확장형 스마트미디어 상용화 모델 개발 지원사업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이 사회 전반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AR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이자 차세대 영상디스플레이 기술로써 산업구조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외에서도 AR 시장이 향후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ReportLinker 시장 조사 전문 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AR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12조 원에서 2024년 88조 원으로 연평균 46.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 유럽, APAC 지역에서 시장이 활발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 중 APAC 지역 시장 규모가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SPRI 시장 조사 전문기관은 B2C 시장 대비 B2B, 산업 분야에서의 AR 활용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에 영상 콘텐츠에서 활발하게 활용되는 AR 콘텐츠 시장이 산업현장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AR 콘텐츠를 다양한 산업 현장에 활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에 국내 AR 전문기업인 버넥트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AR 제품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버넥트는 지난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스마트미디어활성화지원 사업에 참여해 차량용 AR콘텐츠를 제작하고, 해외 진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기업이 보유한 AR 기술로 자동차 AR 매뉴얼 서비스로 개발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버넥트는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에도 진출해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서비스 기업으로의 성장을 목전에 두고 있는 버넥트의 성장기가 주목된다.

AR 원천기술 보유한 강소기업 '버넥트'

2016년 설립된 버넥트는 카이스트 연구원들이 모여 만든 산업용 AR 및 디지털트윈 전문 기업이다. 연구원들이 탄탄한 기술력을 가지고 설립한 기업으로, 자체 보유한 AR 원천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용해 산업 안전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립 이후 빠른 시간 동안 SK, LG, 한전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100여 건이 넘는 프로젝트를 완수했으며, 최근에는 90억 원 규모의 시리즈 투자를 유치해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버넥트는 기술 연구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객체를 학습, 인식, 검출 및 추적할 수 있는 AR 엔진 VIRNECT AR SDK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타겟을 속도 15ms 이하 90% 이상의 정확도로 검출하여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증강한다.

산업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는 AR 기술을 보유한 버넥트는 아직 초기 단계인 AR 산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적용 사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고 홍보하기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스마트미디어활성화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자동차 AR 매뉴얼 서비스 추진

버넥트는 사업 참여를 통해 자동차 AR 매뉴얼 서비스를 개발, 추진했다. 자동차 AR 매뉴얼 서비스 모델은 AR 콘텐츠 제작 솔루션과 AR 콘텐츠 뷰어, 콘텐츠 제작 서비스 등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정 차량을 선정해 자체적으로 AR 매뉴얼을 제작했다. 버넥



트는 2019년 신형 모델인 현대 쏘나타 GN8을 차량 모델로 선정해 신규 기능 DB화 및 매뉴얼 시나리오 구성, AR 개발을 거쳐 서비스 대표 모델을 완성했다.

또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 후에는 별도 제작된 사이트를 통한 서비스 안내와 유튜브 크리에이터 체험, SMS 이벤트, 보도자료 등을 활용해 서비스를 홍보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실제로 매출이 발생되기도 했다.

박미나 매니저는 “사업 참여를 통해 최근 많은 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고객 경험 관리 측면에서 효과적인 결과를 얻었다”며 “자동차 AR 매뉴얼 서비스의 강점인 고객 경

험 강화를 부각할 수 있도록 주요 메시지를 구성해 홍보해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기업 자체 AR 콘텐츠 제작으로 국내 AR 시장 확대 기대

버넥트가 개발한 AR 매뉴얼 서비스는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AR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 AR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AR 콘텐츠 제작을 전문 제작사에 맡기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번 서비스 개발로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게 되어 비용 및 시간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됐다.

버넥트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함께 제공되는 AR 제작 소프트웨어 VIRNECT Make를 통해 AR콘텐츠를 손쉽게 사내에서

제작하고 수정 및 배포할 수 있으며, 고객 경험을 강화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업이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차량용 AR 매뉴얼을 예로 들면, 사용자가 차량 각 부위를 태블릿으로 비춰보면 버튼의 명칭과 기능에 대한 설명이 해당 부위 위에 등장된다. 사진이나 동영상도 삽입해 사용 방법을 더 이해하기 쉽게 안내할 수 있다.

박 매니저는 “아직 초기 시장인 AR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다양한 시장 분야에 적용하는 사례가 발굴되면서 AR의 활용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AR 도입 사례들이 충분히 발굴된 이후에는 시장에서 소비될 다양한 콘텐츠들이 필요해지면서, 국내 AR 콘텐츠 시장의 확대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 성장 목표

버넥트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면서, 서비스 모델을 실제로 상용화하는 경험을 축적했다. 미흡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존보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고객 접점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획득했다.

버넥트는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AR 콘텐츠 서비스 사업의 협업 및 민간기업,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홍보와 판매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또 국내 공공기관 업무 및 서비스에 AR 도입을 목표로 조달청 벤처



나라에 VIRNECT Make를 등록했고, 이를 통해 차츰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아울러, 자동차 업체 및 기타 관련 업체에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영업해 도입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갈 생각이다. 국내에서 구축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AR의 산업적 효과를 입증하고 해외 기업들을 설득하는 자료로 활용해 해외 사업을 확장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진출도 동시에 진행해 글로벌 서비스 기업을 빠르게 안착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매니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실제 산업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필수 솔루션으로 자리 잡도록 기술 및 제품 개발, 마케팅, 영업에 이르기까지 전 사업 부문에서 고객 가치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AR을 넘어 디지털 트윈으로 사업을 확장해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 간 정보의 연결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니인터뷰

Q1. 사업 참여 동기는 무엇인가요?

“국내 AR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다양한 적용 사례를 만들고 활용성을 입증해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직 수요 기업들이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시장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술 활용 사례를 만들어 내고 이를 홍보하는 것이 필요해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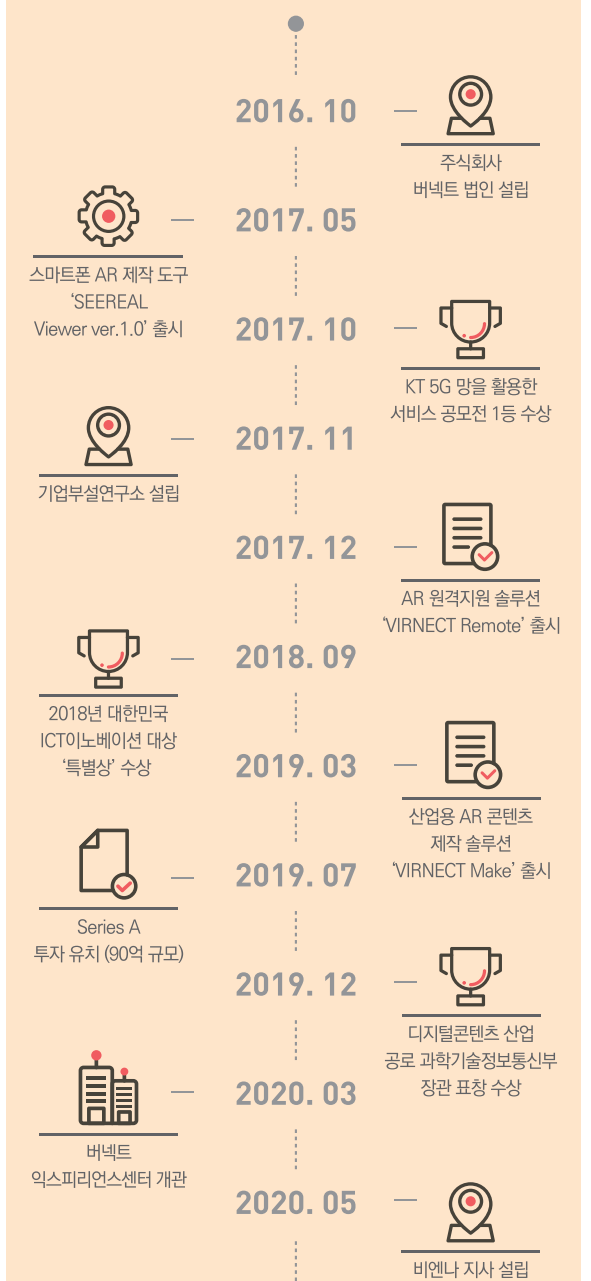
Q2. 이번 성과로 기대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사업 참여를 통해 자동차 AR 매뉴얼 서비스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시장 분야 적용 사례가 발굴되었다고 생각하고, 향후 AR의 활용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R 도입 사례들이 충분히 발굴된 이후에는 시장에서 소비될 다양한 콘텐츠들이 필요해지면서 국내 AR 콘텐츠 시장의 확대도 전망됩니다. 버넥트는 이번 서비스 발굴을 계기로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홍보와 판매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핵심성과

- AR 콘텐츠 제작 서비스의 솔루션 사업화
- 국내 성공 사례 마련을 통한 포트폴리오 구축
- 비엔나 지사 설립을 통한 해외 진출 모색

Timeline



수출형 콜센터 SW 개발로 해외 사업을 강화하다

(주)부뜰정보시스템

김경징 이사

기업현황

- CEO : 신승재
- 업종 : IT정보통신
- 설립연월 : 1998년 1월
- 홈페이지 : <http://www.buttle.co.kr>

일반현황

- 수행기관명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내역사업명 : 해외 IT지원센터운영
- 참여사업명 : 베트남 호치민IT지원센터 사무실 입주

콜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위한 모든 솔루션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소액 대출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 동남아 금융 시장에서는 콜센터 운영을 위한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동남아 금융시장은 급여로는 일시불 구매가 어려운 휴대폰, 오토바이 등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기 위한 소액 대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사들의 대출권유 마케팅, 대출금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 솔루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기존에 솔루션 구축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업체의 솔루션은 해외에서도 그 경쟁력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해외 진출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콜센터 운영 솔루션 전문기업인 부뜰정보시스템도 이 같은 한계를 느끼고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해외 IT지원센터운영 사업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베트남에 진출하고, 신남방 국가의 시장 진출 거점을 마련하는 등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포화된 국내 콜센터 시장의 한계를 넘어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부뜰정보시스템은 현재 기술 수준을 넘어 탄탄한 기술력 보유를 위해 꾸준히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지원사업을 만나 기업의 미래 성장을 주도할 발판을 마련하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부뜰정보시스템의 미래가 주목된다.

콜센터 운영 솔루션 전문기업 '부뜰정보시스템'

1998년 설립한 부뜰정보시스템은 콜센터 운영 솔루션을 보유한 전문 기업으로 창업 후 22년간 콜센터 관련 솔루션 분야에 집중해왔다. 국내 금융권을 필두로 공공 및 일반기업에 이르기까지 120여 기업에 솔루션을 공급했고, 현재 해외 9개 국에 자사 솔루션을 수출한 이력이 있다.

우수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최상의 요소 기술로 고객만족을 실행하고 있는 부뜰정보시스템은 콜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A to Z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텔레마케팅, 고객상담, 채권추심 등의 PRIME 시리즈의 영역별 전문 상담 솔루션은 물론 상담원 관리, 상담지식관리 솔루션 등 콜센터 운영을 위한 모든 솔루션을 자체 기술로 개발해 공급하고 있다.

또 전화뿐 아니라 채팅, SMS, 이메일, 메신저, SNS 등 다양한 채널로 고객과 접촉할 수 있도록 통합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콜센터 운영을 위한 모든 솔루션을 보유한 부뜰정보시스템은 신규 금융사가 설립되지 않는 국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신규 시장이 생겨나고 있는 해외 시장 진출 필요성을 느껴왔고, 중소기업의 한계를 넘어 해외 시장 진출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정보통신방송사업에 참여했다.



● 해외 시장 진출 발판 마련

부플정보시스템의 콜센터 사업 특성상 금융권 고객이 주요 고객이나, 기존 금융권의 대부분이 이미 고객사이며, 신규 금융사가 설립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부플정보시스템은 국내 사업에서는 비금융권 고객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해외 사업을 통한 확장을 시도해왔다.

부플정보시스템은 이 같은 시장 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해외IT지원센터운영 사업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베트남 호치민IT지원센터 사무실에 입주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동시에 신남방(ASEAN) 지역 진출을 위한 거점을 확보하였다.

부플정보시스템의 김경정 이사는 “중소기업이 해외 사업을 기업 자체의 힘으로만 개척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다”며

“해외 고객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기에 정부 사업에 참여해 해외 진출을 위한 금전적 지원과 고객 신뢰 확보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참여를 통해 베트남 최대 상업도시인 호치민을 거점으로 국내 ICT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 비즈니스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수출형 SW 제품화도 지원 받을 수 있었다.

사업을 통해 수출형 SW를 현지 수출시장에 맞도록 현지 제품화, 서비스 검증 등의 지원을 받아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 초기 해외 시장 진출 장벽 해소 및 고용창출 성과

부플정보시스템은 이번 사업에 참여하면서, SW현지화를 통

한 개발 비용 절감 및 고용창출, 초기 해외시장 진출 장벽 해소 등의 성과를 얻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해외IT지원센터를 통해 경쟁력 있는 SW 제품의 현지화가 지원되었는데, 그 결과 해외에서의 SW 개발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신남방 지역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사무실 및 법인 설립에 필요한 초기 자원을 확보해 해외에서 현지인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현지인 운영인력 채용과 국내 베트남 해외사업 전담 인력 채용을 할 수 있었다.

또 동남아 시장, 신남방 시장은 글로벌 벤더들의 각축장으로 시장의 영향력이 커져 초기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IT지원센터 사무실 입주를 통해 해외 바이어에게 신뢰를 얻고, 바이어 매칭, 발굴 등을 통해 신규 바이

어 구축이 원활해 이를 계기로 점진적인 해외 시장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김 이사는 “해외 진출을 통한 시장 수요 확대, 마케팅 기반 강화, 정부 주도의 지원을 통한 기업의 성장과 경영 안정에 주력하게 되어 글로벌 진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며 “정부지원을 통해 해외 진출에 힘을 얻고, 바이어 매칭, 발굴 등을 통해 신규 바이어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점진적인 해외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1년에 2개국 이상 신규 시장 창출 목표

부플정보시스템은 이번 지원 사업 참여를 통해 솔루션의 고도화와 기술 고도화 노하우를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노하우를 기업의 전체 제품에 적용할 예정이며, 발굴된 해외



고객사에 대한 직접 영업을 강화하고, 파트너사를 통해 현지 영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사업 강화를 위해 해외 지적재산권 확보를 진행할 계획이며, 소프트웨어 제품의 특성상 미투 제품의 출현 시 많은 타격을 입게 되는 점을 감안해 특허 및 상표권 등록 등을 통해 제품과 기술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이사는 “한국시장에서 120여 고객에게 시스템을 공급해 온 부뜰정보시스템은 앞으로 해외 사업을 통해 중국을 시작으로 서쪽 방향으로 고객을 넓혀가고 있다”며 “지원 사업을 통한 베트남 호치민에 동남아 및 신남방 개척을 위한 거점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 1년에 2개국 이상의 신규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니인터뷰

Q1. 사업 참여로 인한 성과는 무엇인가요?

“베트남 호치민IT지원센터 사무실 입주를 통해 해외 고객사에 게 신뢰를 줄 수 있게 되었으며, SW 현지화 사업을 통해 해외에서 SW 개발 비용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현지 운영인력과 국내 전담 인력 등 신규 고용 창출을 이뤄냈으며, 신남방 지역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Q2. 부뜰정보시스템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부뜰정보시스템은 국내 시장에서 20여 년간 콜센터 운영 솔루션을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지 업체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마케팅 방법과 채권 회수 기법 등이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으며, 기능적 우위와 시스템 운영 경험이 현지 업체 또는 해외 경쟁업체와의 결정적인 차별성입니다.”

핵심성과

- 베트남 호치민IT지원센터 사무실 입주를 통한 신남방 ASEAN 시장 진출 거점 마련
- 컨택센터 어플리케이션 PRIME 시리즈 GS인증 1등급 획득
- 클라우드 컨택센터 어플리케이션 SaaS 서비스 기반 마련

Timeline



2020 차세대 미디어대전

NEXT MEDIA KOREA 2020

일시

2020. 11. 02(월)
~ 2020. 11. 06(금)

안내 및 사전 등록

nextmedia2020.kr

비대면 시대,
방송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기회

New Normal,
New Chance in Media

알림

Talk

#

#KCA #정보통신방송사업

〈알림 Talk〉에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사업관리본부의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련 행사 일정을 공유합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20년도 정보통신방송사업 지원(위탁)사업 현장실태조사 실시

1

대상 : 총 107개 지원사업자
(대면 45개, 비대면 62개)

내용 : 사업장 소재지, 취득자산 현황, 참여인력,
위탁(용역)계약 등 점검

일정 : '20.10.28. ~ 11.27.(23일간)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20년도 정보통신방송사업 실태조사 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2

대상사업 : 178개 사업
(보조금 4개, 추경 29개, 일반 145개)

내용 : 사업 추진현황 점검결과 및 사업자
집행실태 통보, 시정 사항조치 요청 등



10 OCTO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5	26	27	28	29	30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SA 2020 비대면 서비스 정보보호 해커톤 공모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A 2020 글로벌 MIL 주간 대표회의 및 청년포럼 개최 (10.2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A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신청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PA NIPA 교육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한 중국/아시아 시장 현지화 교육 (10.28-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SDI 2020 ICT 벤처패널 연구 워크숍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CA 정보통신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접수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SIA 10월 KISIA CEO 조찬간담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A 온라인 KES "OPEN KES" 참가업체 모집 마감	
11 NOVEMBER						
1	2	3	4	5	6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at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외부평가위원 모집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PA 2020년 지식서비스 산업 융합 발전 유공자 포상 신청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A 2020년 데이터 크리에이터 캠프 모집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A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투자 설명회	
8	9	10	11	12	13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S 2021년 봄 EBS 정규·특집 프로그램 기획안 공모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CA 2020 대구·경북스마트미디어X 캠프 모집 마감					

ICT로 THE 스마트한 우리동네 만들기 아이디어 공모전

주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충북혁신도시 소재)

공모전 참가

충청북도 소재지 청소년 누구나(중/고등학생)

- [참가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 QR코드 또는 URL 접속(<https://bit.ly/2SlwCji>)
- [참가 혜택] 참가 대상자 전원 '드론' 제공 (공모전 종료 후, 택배 배송)

공모전 내용

공모전 분야 '3D프린팅, 인공지능' 중 1개 선택하여 온라인 교육 수강 후, '아이디어 작품(제작 파일, 아이디어 기획서, 발표자료 PPT)' 제출

- [3D프린팅] 스마트 시티로 발전한 충청북도의 미래 모습 건설하기
충청북도의 대표 문화재 및 관광지를 선정하여 첨단문화 기술이 들어간 3D모델링(틴커캐드) 제작
- [인공지능] 충북혁신도시 스마트 시티 서비스 개발하기
충청북도의 공공서비스 또는 사회문제,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AI 프로그래밍(스크래치) 제작

모집 및 선발	공모전 모집	2020.10.14.(수) ~ 2020.10.29.(목)	온라인 신청: QR코드 또는 URL 접속 ※ 3D프린팅, 인공지능 중 1개 선택하여 참여(중복 참여 불가)
	모집 결과 발표	2020.10.30.(금)	3D프린팅 100명, 인공지능 100명 선발 ※ 공모전 참가자 모집 결과 발표(문자 또는 메일 안내)
온라인 교육/아이디어 제출	온라인 교육	2020.11.02.(월) ~ 2020.11.13.(금)	30분 내외 온라인 영상 교육 공유 개별 학습 및 전문가 소통 진행 ※ 교육 및 소통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 진행
	아이디어 제출	2020.11.16.(월) ~ 2020.11.20.(금)	아이디어 작품(제작 파일, 아이디어 기획서, 발표자료 PPT) 제출 ※ 발표자료 양식 제공
	아이디어 심사	2020.11.23.(월) ~ 2020.11.26.(목)	우수 아이디어 심사 ※ 3D프린팅 10명, 인공지능 10명 선발
	서류 결과 발표	2020.11.27.(금)	우수 아이디어 20명(분야별 10명씩) 결과 발표 ※ 문자 또는 메일로 결과 안내
아이디어 발표 및 시상	참가자 오프라인 발표	2020.11.30.(월) 오전 예정	참가자 5분 스피치 발표 진행 ※ 장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층 컨퍼런스 홀
	시상식 진행	2020.11.30.(월) 오후 예정	수상자에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및 상품(권) 지급 ※ 분야별 최우수 1명: 20만원·우수 2명: 10만원·장려 7명: 5만원 상당

문의처

041-555-4449 / hellen78@ato-planet.com

2020 비대면 서비스 정보보호 해커톤

'20. 9. 25(금) ~ 11. 9(월)

접수[공모] 기간

9.25(금) ~ 10.25(일) 18시까지

총 상금 4,000만 원



참가 자격

대한민국 국민으로 개인 또는 단체(4인 이내)

대화 주제

비대면 서비스(무인점포·무인물류 등) 관련 기기·데이터·시설 등의 보안·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아이디어 발굴

① 지정과제

: IoT 보안, 실시간 무인 모니터링, 무인 인증, 물리보안 등
비대면 서비스 산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하나 택일

② 자유과제

: 제시된 지정과제 외에 비대면 서비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방안을 자유롭게 제안

신청방법

지정과제와 자유과제중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여, 서비스 기획서 및 참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kgss@kisa.or.kr) 제출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서비스 개발 기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 지원서류 다운로드 : KISA 홈페이지
(<http://www.kisa.or.kr>) 내 '공지사항'란을
확인

www.ictconference.kr

2021 ICT 산업전망 컨퍼런스

Industry Outlook Conference

2020. 11. 10(TUE) ~ 11(WED)

전환의 시대 대한민국
ICT, 미래를 디자인하다!

The Age of Transformation, ICT Designs The Future!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2021 ICT 산업전망컨퍼런스>가
국내외 유명 석학이 함께하는 Ontact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자리정책 및 NEWS



01

일자리정책

“남녀고용평등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3건 국무회의 의결

※ 출처
고용노동부
(2020.10.20)

원문보기
http://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1534

- 정부는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02

일자리뉴스

우리 동네“취업 맛집”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받고, 취업하자!

※ 출처
고용노동부
(2020.10.19)

원문보기
http://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1531

- 고용노동부가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률이 높은 상위 직종과 훈련 과정을 공개했다.
- 서울·경기·인천·강원·대전·대구·광주·부산 8개 권역별로 취업률이 높은 상위 5개 직종과 훈련 과정을 뽑았다.
- 권역별로 취업률이 높은 직종을 살펴보면, 서울은 법률과 정보기술 직종이, 경기와 인천은 기계가공 직종이 대전은 정보기술 직종이 높았고, 강원·광주·대구는 의료 직종이, 부산은 자동차 직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기술 분야의 경우 대전, 서울, 광주 등 다수 지역의 상위 직종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인력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03

“노조법” 개정, 상생의 길을 찾는다!

※ 출처
고용노동부
(2020.10.21)

원문보기
http://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1537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0.21.(수) 16시 로얄호텔(서울시 중구)에서 “노조법 개정 관련 노사정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 국회 법안 논의에 앞서 노조법 정부 입법안의 쟁점에 대해 노·사·정의 이견을 좁히는 동시에 상생의 방안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 토론회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수 교수의 진행 하에 주제 발표 및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욱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준에 완전하고 부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노조법 개정의 방향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존중·증진·실현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면서 추가 개정을 위한 타임 스케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분의 일자리를 공유합니다!

#취업성공
#대박기원

01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년도 한국인터넷진흥원 체험형인턴
(장애인) 공개채용 (10.21-11.5) ▶

- 채용분야 : 체험형 인턴
- 채용인원 : 8명

02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년도 하반기 한국인터넷진흥원
위촉계약직 공개채용 (10.21-11.5) ▶

- 채용분야 : 위촉계약직 (육아휴직 대체근로)
- 채용인원 : 1명

0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계약직연구원
채용공고(통신전파) (10.14-10.29) ▶

- 채용분야 : 통신전파 위촉 연구원
- 채용인원 : 1명

0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0년 계약직기술원(육아휴직 대체인력)
공개채용 (10.19-11.2) ▶

- 채용분야 : 운영복지실, 지식정보서비스실
계약직 기술원
- 채용인원 : 각 1명

05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연구원(정규직) 채용공고 (10.14-11.11) ▶

- 채용분야 : 정보통신 실태조사 및 분석,
경기동향 및
경기지수 조사·분석,
정보통신 정책 및 제도 연구 등
- 채용인원 : 0명

취업정보가
궁금하다면
“Click”

이번에 채용하는 회사는?

기업명	(주)지어소프트
채용분야 (주요업무)	공공SI 개발자 · 프론트엔드 개발 등
지원자격	· 신입/경력
자격요건	· 학력/나이/성별 무관
공고기간	~ 2020.11.13.
공고 원문	http://www.saramin.co.kr ▶

기업명	(주)빌트온
채용분야 (주요업무)	데이터 전처리 · 데이터 등록,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품질관리 등
지원자격	· 신입/경력
자격요건	· 나이/성별 무관, 학력(대졸이상)
공고기간	~ 2020.11.20.
공고 원문	http://www.saramin.co.kr ▶

